부산시장은 “국제관광도시 부산은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경제의 미래이고 동남권 경제 부흥의 핵심은 ‘공항’인 만큼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879억 원을 투입한다. △국제관광도시 육성 기본계획과 브랜드 전략 수립 △부산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등 부산 브랜딩 사업 △해외 매체 광고와 드라마 촬영지원 등 전략적 홍보·마케팅 △일상이 관광이 되는 해양레저체험 콘텐츠와 걷기코스 개발 △부산국제영화제 갈라쇼 상품개발 등 사계절 축제와 마이스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전략사업 분야에는 19개 세부사업에 585억 원을 투입한다. △부산형 관광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 △부산 관광 패스 개발과 대중교통 불편개선 등 편리한 여행환경 조성 △부산 관광 데이터 분석센터 운영과 관광·마이스 강소기업 육성 등 부산형 관광생태계 조성 △범시민 외국인 친절 캠페인 등 글로벌 친화 여행문화 개선 등에 나선다. 연계사업으로는 △부산형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시티투어버스 운영 개선 △도시재생 연계 관광생태계 조성 등 5개 세부사업에 36억 원을 투자해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구상이다.

관광도시 부산 매력 전 세계에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기회로 2018년 247만 명 수준인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24년 1천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7%에 불과한 외국인 관광객의 부산 재방문비율도 60%까지 높이고 5.14점 수준인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는 6.27점(7점 만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관광 관련 신규 일자리도 2020년부터 매년 1만 개씩 창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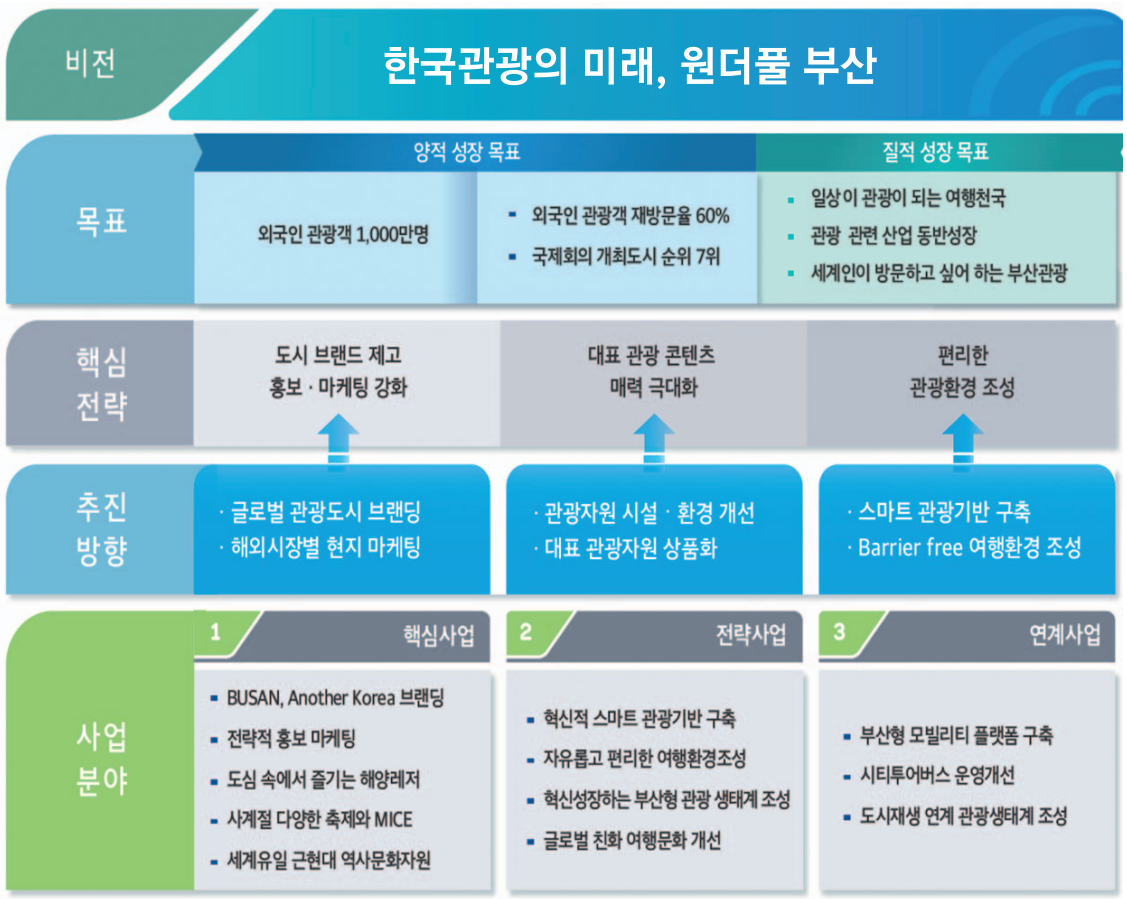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기회로 동부산권의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명품 체류형 관광콘텐츠’와 서부산권의 ‘평화를 테마로 한 콘텐츠’ 등 부산만이 가진 콘텐츠의 매력을 더욱 살려 세계인이 찾아오고 싶은 관광도시 부산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인을 대상으로 부산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관광진흥기구(TPO)와 부산아세아문화원 등 부산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관광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은다. 정부와 협의해 ‘국제관광도시 부산 방문의 해’ 지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관문공항, 국제관광도시 핵심 인프라

부산시장은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기회로 부산·울산·경남을 넘어 경주·통영·여수를 아우르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관광거점 도시로 성장하겠다”면서 “국제관광도시 부산은 부산·울산·경남을 두루 포함하는 동남권 경제의 미래이고 동남권 경제 부흥의 핵심은 ‘공항’인 만큼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24시간 안전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조속히 결정지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조민제_jominje@korea.kr

국제관광도시 부산 비전



민선 7기 부산시 부산 관광 매력 알리기 온 힘

‘젊은 부산’ 강조 실무직원 현장 안내·PT 발표





■부산 국제관광도시 지정

민선 7기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제관광도시 신청을 앞두고 국제관광도시 추진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수와 관광업계, 유관 산업 분야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국제관광도시 선정 자문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특히 지난 1월 6일 진행된 현장실사에서는 해운대·광안리 중심의 기존 도시 마케팅 전략 대신 해양레저와 축제·역사가 공존하는 관광도시 부산 매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부산시는 첫 실사 장소로 기장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난티코브 리조트 내 회의실에서 관광도시 부산의 경쟁력을 브리핑했다. 2017년 문을 연 아난티코브는 호캉스 트렌드를 주도하는 부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 중 하나다. 이어 롯데몰 동부산점 안에 위치한 등대전망대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한국의 하와이가 콘셉트로 숙박·레저·쇼핑·테마파크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 해양레저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시는 세 번째로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으로 현장 실사단을 안내했다. 영화의전당에서는 문화와 축제도시 이미지를 강조했다. 영화의전당과 인접한 벡스코에서는 부산의 마이스(MICE) 산업 인프라와 콘텐츠를 함께 소개했다. ‘젊은 부산’을 강조하기 위해 실무직원을 현장실사 안내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로 내세우는 파격도 국제관광도시 선정에 크게 기여했다.